



언론분쟁의 궁금증을 풀어준 인턴십 프로그램



조 상 욱

광명고 3학년
광명시 청소년신문 '청신호' 기자

저는 아마 처음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두 번 참여한 학생일 것입니다. 작년 12월 인터넷을 통해 우연히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겨울방학 동안 인턴십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평소에도 이러한 활동들에 관심이 많던 저는 참가 신청을 하게 되었고, 1월 27일 언론중재위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인턴십 강의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내용을 시작으로, 마치 대학에서 언론학을 전공하면 배울 법한 내용들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칫 딱딱할 수도 있을 잘못된 언론피해에 관한 이야기와 해결방안들을 강사님께서서는 유머를 곁들여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어려울 수도 있는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와 같은 인격권 침해에 대한 내용을 사례를 통해 들으니 더 이해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접수상담팀에서 전화와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언론피해 접수를 받고 계시는 직원 분들의 모습을 보고 바쁘겠지만 보람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심리실을 참관하면서는 이곳에서 이루어진 조정과 중재가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듣고 작은 공간이지만 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의미가 큰 공간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때 프로그램의 내용을 다 듣고 보니 제가 모르고 있었던 정보들과 함께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고, 이런 곳이 있다,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것을 제가 기자로 소속되어 있는 신문인 청신호(발행처: 광명시립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통해 광명시 중·고등학생들에게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끝난 뒤 홍보팀의 담당자분을 만나볼 수 있었고, 2월 17일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이진숙 홍보팀장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언론중재위원회가 하는 일 중 특히 조정과 중재의 차이에 대해서 깊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기사를 작성하여 3월에

보도가 나간 뒤에도 언론중재위원회와 저, 청신호와의 관계는 8월까지 이어졌습니다. 2월 인터뷰 때 올해 청신호 신입기자들이 뽑히는 여름방학 중에, 이번엔 청신호 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갖기로 약속했고 8월 6일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두 번 참여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날 같이 동행한 기자들 중에는 중학생도 있었습니다. 강의 내용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물어보니 강의내용을 잘 이해했다고 하며 만족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인턴십 프로그램은 학생 수준에 맞춰진 강의로,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든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다녀오면 언론중재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라 생각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제 꿈은 당시 방송기자였지만 부끄럽게도 이런 곳이 있는지, 이런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고 막연히 법원에서만 언론분쟁을 해결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아마 많은 학생들이나 국민들이 아직까지 이렇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학생들에게 언론중재위원회를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청신호에서 언론중재위원회 인터뷰 기사를 썼던 것을 가장 큰 기억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홍보대행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되기로 진로를 변경했지만 이 직업 역시 언론대행을 중요한 업무로 삼기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들었던 이 내용들과 인턴십을 두 번 참여했던 일, 인터뷰를 진행할 때의 경험 전부가 앞으로 제가 직업세계에 나아가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주변에 언론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언론중재위원회를 알려주겠습니다. 🍌